

지역사회 상생활동

신세계인터내셔널은 희망배달 캠페인을 통해 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회사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액수만큼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기부하는 신세계 그룹만의 기부 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 및 환아 치료비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누적 조성기금 (누적기준)

1,130억 원

임직원 기부액에 기업 매칭펀드가 더해져 취약계층 상생 기금 1,13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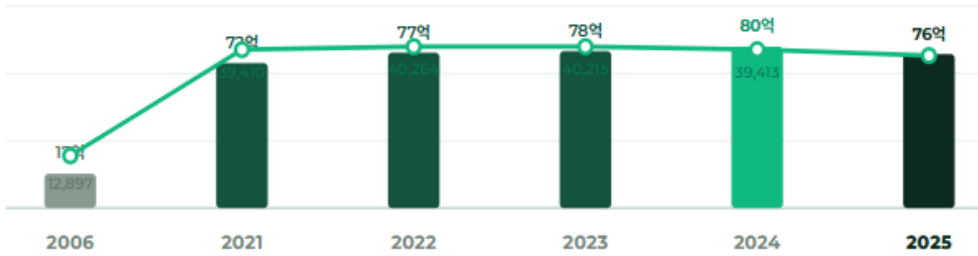
누적 참여 인원 (누적기준)

565,761명

누적 56만 명이 넘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선순환 기부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했습니다.

연도별 성과 변동 추이 (2006 vs 2021 ~ 2025)

조성기금 (억 원) 참여인원 (명)



* 본 시각화 지표는 제공된 image_a3de43.png 파일을 고충하여 100% 정합성을 기준으로 렌더링되었습니다.

01

치료비 및 건강 자립 지원

난치성 질환 및 희귀 소아암 환아들의 지속적 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매칭펀드를 우선 매칭합니다.

02

희망 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

어린이들의 안전한 발달 권리 수호를 위한 안심 놀이 인프라를 마련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을 제공합니다.

03

지역 밀착 희망 배달마차

실시간 취약 계층의 생필품 매칭 및 긴급 소외 계층 맞춤 배치를 도모하는 고유의 상생 연계 활동입니다.